

한영 문학 번역 문체 연구: 코퍼스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최 희 경
(고려대)

1. 들어가는 말

한국 대중문화의 활발한 해외 진출 소식이 이제는 당연시될 만큼 익숙한 일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가요가 케이팝(K-POP)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한국과 지리적, 사회문화적으로 동떨어진 대륙에서도 한국 TV 드라마가 방영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전파는 그동안 번역 작업이 유명작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해외시장의 호응도 크지 않아 큰 성과가 없었다. 영어권의 경우 영국, 미국 등의 출판계가 해외도서 출간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다(임병권 2014: 220). 하지만 한 국가의 문학작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수요는 해당 국가의 문화 전반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성숙한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임병권 2014: 218), 한국 대중문화의 활발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문학작품의 해외 전파에 호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가요, 드라마 등의 매체는 언어 기호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 기호 등이 결합해 하나의 양식을 이루므로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중개 과정 없이도 타 언어사회에 전달될 수 있는 반면, 책은 표지나 삽화 정도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언어기호만으로 쓰인 텍스트이므로 해당 언어를 모르는 타 언어사회의 독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중개 과정인 번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학번역에서 한 언어 고유의 체계와 특징을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일은 여러 난점이 있다. 도착어가 모국어가 아닌 번역가인 경우 원어민 감수를 통해 도착어의 언어적, 문체적 규범에 위배되는 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도착어 원어민 감수자는 이미 번역된 텍스트를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괴리에 대해 추정할지언정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최근에는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원어민 번역가 양성의 결과¹⁾로, 한국인 번역가의 번역 후 원어민의 감수, 한국인 번역가와 원어민 번역가의 협업 번역 등이 주를 이룬 초기와 달리 원어민 단독 번역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문학의 번역 문체에 새로운 특징이 가미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본고는 한국문학 번역에 한국인 또는 원어민 번역가의 속성에 따른 상이한 문체적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문학작품 번역 및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번역가 육성과 문학작품 번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번역에 대한 연구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교육이나 실무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학번역 연구는 주로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일정 분석 항목에 대해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국지적인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학번역 지망생이나 실무 번역가가 도착어의 언어적 문체 등 전반적인 특징을 참고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본고는 코퍼스 기반의 접근법으로 기존 번역 문체 연구 결과를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문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학번역의 문체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인 번역가와 원어민 번역가의 번역 작품을 수집해 각각 분석자

1) 한국문학번역원(<http://www.klti.or.kr>)에서는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관에서 수여하는 한국문학번역상 및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에 매년 원어민이 포함되고 있다.

료를 구축한다. 출발어인 한국어의 언어적, 문체적 특성에 익숙한 한국인 번역가와 도착어에 익숙한 원어민 번역가의 문체를 비교 분석한다. 또 번역이 아닌 비번역 텍스트, 다시 말해 원래 영어로 쓰인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 두 집단의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문체 특성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텍스트의 문체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선행연구를 소개한 후 연구방법 및 분석 항목을 기술하고 그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차례로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체론의 연구 대상

문체(style)는 말 그대로 어떤 글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넓게는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도 문체를 논하기도 하고(Simpson 2004: 2-3), 좁게는 저자에 초점을 맞추어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상황에서 언어를 쓰는 특징적인 방식(Leech & Short 2007: 9)을 가리키는 등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된다. 문학작품의 문체 연구는 작가의 예술적, 미학적 동기로 나타나는 특징이 주된 분석 대상이 되거나, 그런 동기와 무관하게 텍스트상에서 나타나는 언어 자질을 분석해 저자 특유의 글쓰기 특징을 분석하는 저자 판별(authorship attribution)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언어의 어떤 측면을 고찰할지가 문체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문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여러 문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심슨(2004: 5)은 음운, 표기, 형태, 통사, 어휘, 의미, 화용, 담화 등 언어의 기본적인 층위 모두에서 문체가 논의될 수 있으며, 이들 층위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언어 층위의 모든 요소가 문체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체 연구가 모든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리치와 쇼트(2007: 61-64)가 제시한 문체 분석 대상 목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저자는 텍스트 내 수많은 언어 요소 중에 저자의 선택과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분석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문체 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분석 목록은 어휘, 문법, 비유, 결속/맥락 등 크게 네 범주로 분류된다. 주요 항목을 보면 어휘 면에서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빈도나 속성을 조사하거나 어휘가 쓰이는 형태나 의미 등을 분석한다. 문법 면에서는 문장과 절의 유형과 속성, 어순, 기능어의 기능 및 의미 효과, 문법 구조 등을 분석한다. 비유 면에서는 이례적인 언어 사용법과 표현, 각종 비유 표현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결속/맥락 면에서는 텍스트의 짜임새와 관련된 결속요소(지시, 생략, 대체, 반복, 접속)를 분석하거나 텍스트 참여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이나 태도 등을 고찰한다.

그런가 하면 라이트와 호프(Wright & Hope 2005)는 문체 분석 기법을 문법 단위별로 논의하기도 한다. 작가는 어휘 차원에서 어원, 단어 길이, 언어(collocation)의 양상 등을 살펴보거나, 크게는 구(phrase) 차원에서 수식어, 관사, (인칭)대명사 등을 중심으로 명사구를, 동사의 시제나 태, 활용을 중심으로 동사구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더 크게는 절의 형태나 연결구조, 텍스트 전체의 결속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정보구조 등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체 연구는 다루지 않는 언어 요소를 찾기 힘들 정도로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의 문체가 결국 저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린 의식적, 무의식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때,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모든 특징적 요소가 문체 분석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본고와 같이 코퍼스 언어학의 분석 기법을 대량의 코퍼스 자료에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낱 것의 결과는 탐색적인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2.2 문학번역의 문체 연구에 관한 코퍼스적 접근

살단하(Saldanha 2011a: 27)는 번역 문체 연구의 두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원문에 대비해서 나타나는 번역 문체를 다루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가 중심의 문체 연구다. 전자는 번역 문체가 원문 문체의 재생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문이 번역가의 주관적 해석을 거쳐 번역된다 해도 논의의 출발점은 원문 분석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원문 중심적인 관점이다. 후자는 이보다는 번역문을 생산하는 번역가가 언어 사용에서, 또 글쓰기

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데에 집중한다. 사회언어학의 관점을 빌리자면 화자의 문체는 텍스트로써 소통하는 화자가 텍스트 수용자를 고려해 언어 사용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나며, 화자의 문체는 자신이 속한 맥락에 따른 정체성을 나타낸다(Bell 2001: 139). 서로 다른 모국어 배경을 가진 번역가의 번역 코퍼스들을 분석하는 본고에서는 후자의 관점이 더 유용해 보인다. 베이커(Baker 2000) 또한 후자의 관점에서 번역 문체를 연구했다. 그녀는 문체를 텍스트 생산자의 지문에 비유하면서 문체 연구에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텍스트 생산자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녀는 ‘번역가의 문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별 번역가별로 작가가 다른 출발어 텍스트 여러 편에 대한 번역을 코퍼스로 구축해 서로 비교하고 나아가 도착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참조 코퍼스와 비교 분석했다. 이로써 각 번역가의 번역에서 특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한 것인데, 이는 본고의 분석 방향과도 공통된 면이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국인 번역가와 원어민 번역가라는 두 집단의 문체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므로 어떤 집단의 문체적 정체성을 다른 집단에 대비해 탐구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지만 각 집단 내에서는 여러 번역가의 문체가 혼재되어 있어 번역가 개인 문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번역가의 문체적 특징은 결국 어떤 언어 특징이 준거가 되는 텍스트에 비해 대상 텍스트에서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문체 연구에서 특이성(distinctiveness)(Saldanha 2011b: 239-240), 탈규범(deviance) (Mahlberg 2013: 8), 전경화(foregrounding)(Biber 2011: 21) 등으로 표현되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패턴(Baker 2000: 246)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체 논의에서는 빈도 연구를 비롯한 정량적 연구가 매우 유용한 토대가 된다. 정량적 분석을 실행한 문학번역 문체의 선행연구에서는 코퍼스 언어학을 문체론에 접목한 코퍼스 문체론의 적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코퍼스 문체론은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분석 기법을 적용해 기존 문체 연구에서 판별하지 못했던 언어 자질을 포착해냄으로써 코퍼스나 개별 텍스트의 문체를 파악하는 접근법이다. 용어가 최근에 자리 잡았을 뿐 문학작품 연구에서 이미 유사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므로, 코퍼스 문체론이란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문체 연구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Biber 2011:21).

2.3 선행연구

코퍼스를 기반으로 문학번역을 고찰한 선행연구는 한 작품을 코퍼스로 하는 연구(조수연 2014), 같은 작품에 대한 여러 번역본을 분석하는 연구(조준형 외 2011) 또는 여러 번역사별 번역 코퍼스에 나타나는 문체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Saldanha 2011a), 문학작품의 번역 코퍼스 문체를 비번역 코퍼스 문체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창수 2011; 이창수 2016) 등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창수(2011)는 영한 번역과 비번역 코퍼스를 대상으로 번역어와 비번역어의 차이를 어휘묶음(*lexical bundles*)²⁾ 분석으로 살펴보고, 번역어에서 나타나는 표준화(*normalization*)³⁾ 가설의 유효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살단하(Saldanha 2011a)는 두 번역가의 번역 코퍼스를 각각 구축해 강조 기능의 이탤릭체 사용 여부와 차용어 사용 여부를 분석해 두 번역가의 문체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인 올로한과 베이커(Olohan & Baker 2000)의 연구를 토대로 두 번역가의 코퍼스에서 *say*와 *tell* 간접화법의 선택적 *that* 사용 빈도를 조사해 비교 분석했다. 선택적 *that* 사용은 “내재적이고 잠재적인 명시화 번역”(Olohan & Baker 2000: 143)의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번역가의 습관에서 배어나는 문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항목으로 선택되었다. 모든 분석 항목에서 두 번역가는 빈도상 큰 차이를 보였다. 베이커(2004)는 TEC(*the Translational English Corpus*)에 포함된 전기 및 소설 하위코퍼스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lexical phrase*)의 출현 패턴이 번역과 비번역에서 달리 나타나는지, 또 번역 코퍼스 내 개별 번역가 사이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했다. 번역가들이 언어 형태를 선택할 때 더 보수적이며 더 표준적인 형태를 선호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가 번역과 비번역 코퍼스에서 발생하는 빈도를 비교했다. 분석을 위해 선정된 정형표현 예시는 *at the same time, in the middle of, from time to time, on the other hand, that is,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once and for all, when it comes to, at the edge of the, I thought to myself, in a manner of speaking* 등이며, 모두 비번역 텍스트에 비해 번역

2) 텍스트 내에서 빈출하는 “순차적 어휘군”을 말한다(이창수 2011:149).

3) 번역은 도착어에서 특징적이거나 정형화된 표현을 선호하고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Baker 1996: 183).

텍스트에서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았다(Baker 2004: 172-76).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과 항목을 분석에 활용해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 장에 상술하도록 한다.

3. 연구방법 및 자료

3.1 분석 코퍼스 구축

본고는 한국문학의 번역 텍스트 중에서도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사이에 출간된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으로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교 코퍼스이자 참조 코퍼스로 비번역 영어 소설 코퍼스를 구축한다. 번역 코퍼스는 다시 한국어가 모국어인 번역가와 영어가 모국어인 원어민 번역가의 코퍼스로 나누어 구축해 두 번역가 그룹 간 문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한국인 번역가 코퍼스에는 총 7명의 번역가⁴⁾, 22편의 작품을 넣었다. 번역가의 이력을 살펴 한국에서 대학교육까지 마친, 한국어가 모국어인 번역가의 작품을 선정했다(공역 제외)⁵⁾. 원어민 번역가 코퍼스는 영어권 국가 태생의 원어민의 번역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명⁶⁾의 번역 작품 23편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원래 영어로 쓰인 소설 코퍼스와의 비교를 위해 BNC(British National Corpus)의 축소판인 BNC Baby⁷⁾에서 소설 코퍼스만 따로 추출해 코퍼스를 구축했다. 이 코퍼스를 참조 코퍼스로 활용해 두 번역가 집단의 코퍼스와 비교해보도록 한다. 코퍼스 개요와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4) 전경자, 유명난, 서지문, 안정효, 설순봉, 김성곤, 이정희.
 5) 언어습득에 있어 사춘기가 결정적 시기라는 주장(critical period hypothesis)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Larsen-Freeman 2011: 160). 본고에서도 결정적 시기를 한국어 환경에서 보냈는지를 기준으로 한국어가 모국어인 번역가와 영어가 모국어인 번역가를 선정했다.
 6) Kevin O'rourke, John Holstein, Brendan-MacHale, Samuel Perry, Janet Poole, Theodore Hughes, Marshall R. Pihl, W. E. Skillend.
 7) 1억 단어 규모의 BNC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표본 추출해 제공되는 4백만 단어 규모의 코퍼스로 소설, 기사문, 학술문, 대화문(구어)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natcorp.ox.ac.uk/archive/oldBabyDocs/baby-des.html>).

〈표 1〉 코퍼스 개요 및 구성

속성	코퍼스명	코퍼스 구성
한국인 번역가	Kor_Eng	번역가 7명 총 22편
원어민 번역가	Eng_Eng	번역가 8명 총 23편
원어민 저자	Ref_Eng	BNC Baby

3.2 분석 항목 및 방법

본고의 분석은 우선 코퍼스들의 개괄적인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통계량 검토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번역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논의된 문체 분석 항목 중 아래와 같이 본고 논의에 유의한 항목을 분석해보고 기존 연구 결과와도 비교해보도록 한다. 분석 항목 및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 개요

번역특성	분석 항목	분석 방법
명시화	간접화법의 <i>that</i>	키워드, 콘코던스
정형표현	<i>at the same time</i> 외	엔그램, 콘코던스,

올로한과 베이커(2000)는 간접화법에서 *say/tell* 뒤에 선택적으로 쓰이는 *that*이 번역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분석을 통해 번역의 명시화 경향을 주장했다. 번역에서는 생략해도 되는 문법표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중 *tell* 동사와 함께 쓰이는 *that* 사용을 토대로 한국인 번역가와 원어민 번역가의 명시화 경향을 비교해본다. 다음으로 베이커(2004)에서 논의된 번역가들의 정형적인 표현 선호에 관해 분석해본다. 베이커가 사용한 정형적 표현들 중 같은 용법, 다른 형태인 *that is,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의 사용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번역 코퍼스와 원어민 번역 코퍼스, 또 비번역 코퍼스 간의 문체 차이를 검토해본다. 코퍼스 분석은 워드스미스 툴스 7.0(WordSmith Tools 7.0)(Scott 2016)의 키워드(KeyWords), 콘코던스(Concordance), 엔그램(n-gram) 분석 등을 사용해 실행한다.

4. 분석 및 논의

4.1 개괄 분석

워드스미스에서 어휘목록(WordList) 기능은 코퍼스에 사용된 모든 단어(토큰)가 빈도순대로 나열된 목록을 생성해 코퍼스의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을 제공한다. 이 통계량은 코퍼스의 전체적인 속성을 짐작할 수 있는 기본 단서가 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Kor_Eng, Eng_Eng, Ref_Eng의 기술 통계량을 정리한 표다.

〈표 3〉 코퍼스 기술 통계량

통계량	Kor_Eng	Eng_Eng	Ref_Eng
총 단어수	1,136,657	609,531	992,864
평균문장길이	14.97	14.09	11.65
STTR(%)	41.89	41.83	44.75

표에 나타난 기술 통계량을 보면 두 번역 코퍼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Kor_eng와 Eng_Eng 코퍼스를 비교해보면 평균 문장 길이 면에서 한국어인 번역가가 원어인 번역가보다 문장이 더 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적은 차이는 출발어 텍스트의 영향일 수도 있다. 평균 문장 길이나 어휘 사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척도인 표준 TTR (standardized type-token ratio)에서 나타나는 두 번역 코퍼스 간의 차이는 번역 코퍼스와 참조 코퍼스 간의 차이에 비해 적어 두 번역 코퍼스의 성격이 참조 코퍼스 대비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번역 코퍼스가 비번역 코퍼스에 비해 문장 길이는 길지만 어휘 다양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번역문이 대체로 문장 길이가 짧고 어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번역의 보편소 가설(Laviosa 2002: 58-64)에는 부분적으로만 부합하는 결과다. 텍스트의 장르 등 코퍼스의 성격에 따라 번역 보편소 주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장르의 경우 대화문 등 짧은 문장이 많이 등장할 수 있지만 번역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는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번역 보편소 주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휘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척도를 사용해 추가로 검증해볼 수 있다. 바로 전체 단어 중

내용어의 비율, 즉 어휘밀도를 산정해보는 것인데, 어휘밀도가 높을수록 텍스트의 정보량과 정보 부하(information load)가 커지게 된다(Baker 1995: 237). 각 하위 코퍼스의 어휘밀도를 계산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Ref_Eng>Kor_Eng>Eng_Eng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코퍼스 간에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STTR 비교에서 살펴본 어휘 다양성 결과를 뒷받침한다.

〈표 4〉 코퍼스별 어휘밀도

Kor_Eng	Eng_Eng	Ref_Eng
47.21	46.86	47.63

4.2 명시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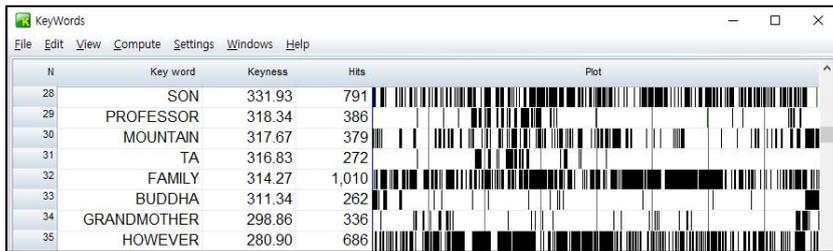
4.2.1 키워드 분석

번역문에서는 명시화의 결과로 “수식어나 접속어, 양화사 등 문법 장치가 늘어난다”(김정우 2012: 54). 이에 따라 번역 텍스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은 비번역 텍스트에 비해 번역 텍스트에서 접속어(접속사, 접속부사 등)의 빈도가 훨씬 높으리라는 것이다. 간접화법의 *that*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와 같은 가설을 토대로 번역 코퍼스의 명시화 경향을 워드스미스 키워드(KeyWords) 기능을 사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번역 코퍼스인 참조 코퍼스에 대비한 번역 코퍼스들의 키워드 분석을 각각 실행했다. 키워드는 비교되는 코퍼스에 비해 연구 코퍼스에서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된 단어를 말한다(Scott & Tribble 2006: 56). 워드스미스가 산출하는 키워드는 코퍼스 내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연구 코퍼스에 사용된 빈도, 연구 코퍼스의 총단어수, 비교 코퍼스에 사용된 빈도, 비교 코퍼스의 총단어수를 교차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이므로, 키워드 목록에 나타나는 단어는 코퍼스 간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참조 코퍼스인 Ref_Eng에 대해 한국인 번역가의 번역 코퍼스 Kor_Eng의 키워드를 산출한 결과, 304개의 키워드가 산출되었다. 키워드 목록을 살펴볼 때는 소설로 구성된 코퍼스의 특징을 살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설

의 주제에 따라 특정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시화 요소인 접속어 또한 특정 번역가나 작품의 특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코퍼스 전체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키워드 목록 하단 탭에서 키워드의 분포를 나타내는 플롯(plot)을 클릭하면 그림 1과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그림에서 *son*, *mountain*, *family*, *however* 등은 코퍼스 전체에 고루 분포한 반면, 특히 *professor*, *TA*, *Buddha* 등은 상대적으로 일부 영역에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에 고루 분포한 단어 중 *son*, *mountain*, *family* 등은 소설의 주제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단어는 코퍼스 간 차이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탐구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그림 1 Ref_Eng 대비 Kor_Eng 키워드 분포 플롯



본고의 관심은 국지적이고 협소한 분포를 보이거나 소설의 내용을 담은 키워드보다 번역가의 번역과정에 영향을 받아 드러날 수 있는 전반적인 번역 문체의 특징, 그중에서도 명시화라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접속어다. Ref_Eng 대비 Kor_Eng의 키워드 304개에서 접속어는 *however*, *therefore*, *whenever*의 세 개를 찾을 수 있었다(표 5).

〈표 5〉 관심 키워드 목록 (Kor_Eng vs. Ref Eng)

키워드	Kor #	Kor %	Ref #	Ref %
however	686	0.06	174	0.02
therefore	152	0.01	18	0.002
whenever	192	0.02	36	0.003

두 코퍼스의 크기는 엇비슷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비율로

비교해보면 *however*⁸⁾, *therefore*, *whenever*가 Ref_Eng에 비해 Kor_Eng에서 각각 3배, 5배, 6.7배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참조 코퍼스에서 다른 종류의 접속어가 Kor_Eng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or_Eng에 대한 Ref_Eng의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총 320개의 키워드가 검출되었으나 접속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많은 접속어 중 *however*, *therefore*, *whenever*를 제외하고는 상호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접속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인 번역가의 번역에서 접속어를 사용한 명시화 경향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인 번역가가 이들 접속어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명시화의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 표현 대비 선호 표현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결과를 원어민 번역가 코퍼스의 키워드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자. Ref_Eng 대비 Eng_Eng의 키워드를 출력한 결과 총 245개의 키워드가 나왔고, 그중 접속어 키워드는 *whenever*가 유일했다. 빈도는 117, 비율은 0.02%로 한국인 번역 코퍼스와 비슷한 사용 양상이다. Kor_Eng의 키워드였던 *however*의 빈도는 214(0.04%), *therefore*의 빈도는 10(0.00002%)으로 같은 번역인 Kor_Eng 보다는 오히려 비번역인 Ref_Eng에 가까워 보이며 키워드로 검출되지 않았다. 반대로 Eng_Eng에 대비한 Ref_Eng의 키워드를 검출한 결과에서는 한국인 번역가 코퍼스 때와 마찬가지로 접속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코퍼스 간 키워드 분석으로 접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명시화 성향을 가늠해 본 결과, 원어민 번역가 코퍼스에 비해 한국인 번역가 코퍼스에서 더 많은 접속어가 키워드로 나타나 한국인 번역가가 이들 접속어를 원어민 번역가나 원어민 저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therefore*의 사용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 한국인 번역가가 원어민 번역가 및 원어민 저자에 비해 특정 접속어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한국인 번역가와 원어민 번역가 사이에 문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8) 양보절의 접속사로 쓰인 경우가 43개였고 나머지 643개는 문두, 문중, 문미에서 ‘그러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2.2 간접화법의 선택적 *that* 명시화

참조 코퍼스에 대한 두 번역 코퍼스의 키워드 분석에서 *that*이 키워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that*의 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용법에서 명시화 경향을 가려내기에는 어렵다. 이에 올로한과 베이커(2000)에 따라 범위를 좁혀 *that*의 용법 중 명시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간접화법의 선택적 *that*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세 코퍼스에서 각각 워드스미스의 어휘맥락 색인 기능인 콘코던스를 사용해 간접화법에서 *tell* 동사가 *that*과 함께 쓰인 용례를 찾고 그 비율을 산정해보았다⁹⁾. 그림 2는 그중 Eng_Eng에서 *tell*(tell, tells, telling)*이 검색됨을 검색어로 해 콘코던스 목록을 출력한 예시이다.

그림 2 Eng_Eng의 *tell* 콘코던스 목록

Kor_Eng, Eng_Eng, Ref_Eng에 대해 간접화법 *tell* 동사 뒤에서 선택적 *that* 이 사용된 빈도 및 비율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6).

9) 올로한과 베이커는 *say*와 *tell* 동사를 분석했다. 본고에서는 원형과 활용형이 모두 동사로만 쓰이는 *tell*에 국한해 분석하도록 한다. 콘코던스 목록의 각 행을 검토해 간접화법 용법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으며, 원형으로 쓰인 경우 외 *tells*, *told*, *telling* 등 동사의 활용형 모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다.

〈표 6〉 코퍼스별 선택적 *that* 사용 비율

코퍼스	<i>tell</i> 간접화법 전체	<i>that</i> 사용	<i>that</i> 사용 비율
Kor_Eng	374	248	66.3%
Eng_Eng	155	102	65.8%
Ref_Eng	392	190	48.5%

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that*이 비번역 참조 코퍼스에 비해 두 번역 코퍼스에서 많이 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올로한과 베이커(2000)의 주장처럼 번역이 상대적으로 문법표지를 더 명시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인 번역가 코퍼스가 원어민 번역가 코퍼스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번역과 비번역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직관적인 비율의 차이가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간단한 통계검정으로 확인해보도록 한다. 명목변수(nominal variable) 분포에 대한 두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제곱(chi-square)¹⁰⁾ 방법을 사용한다.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데이터는 *that*이 사용된 경우(*tell that*)와 사용되지 않은 경우(*tell zero*)로 표 7과 같으며, Kor_Eng와 Eng_Eng, Kor_Eng와 Ref_Eng, Eng_Eng와 Ref_Eng 조합 순으로 검정해보았다¹¹⁾.

〈표 7〉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코퍼스별 데이터

코퍼스	<i>tell that</i>	<i>tell zero</i>
Kor_Eng	248	126
Eng_Eng	102	53
Ref_Eng	190	202

that 사용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Kor_Eng 대 Eng_Eng의 카이검정 결과는 $X^2 = 0.012$, $df = 1$, $p=0.911$ 으로 두 코퍼스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오즈비(odds ratio)는 1.023으로 Kor_Eng가

10) t-검정과 비교해 더 정교하며 데이터 정규성(normality)을 전제하지 않아 코퍼스언어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McEnery & Wilson 2001: 84).

11) 통계소프트웨어 SPSS 18을 사용한다.

Eng_Eng에 비해 *that*을 사용할 확률이 1.0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코퍼스 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Kor_Eng 대 Ref_Eng의 카이검정에서는 $X^2 = 24.881$, $df = 1$, $p=0.000$ 으로 두 코퍼스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는 2.093으로 Kor_Eng가 Ref_Eng에 비해 *that*을 사용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코퍼스 간 차이를 보여준다. 마지막 Eng_Eng 대 Ref_Eng에서도 $X^2 = 13.416$, $df = 1$, $p=0.000$, 오즈비 = 2.046으로 두 코퍼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 분석 결과는 직관적인 수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번역 코퍼스는 모두 비번역 코퍼스에 비해 *tell* 동사 뒤에 *that*을 사용하는 명시화 경향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번역가는 원어민 번역가에 비해 *that* 명시화의 경향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두 번역 코퍼스는 번역으로서의 유사한 속성을 나타냈다. 앞선 키워드 분석의 접속어 사용 경향에서 두 코퍼스 간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번역가와 원어민 번역가의 번역에서 명시화 경향은 분석 항목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3 정형표현 분석

4.3.1 엔그램 분석

엔그램(n-gram)이란 이창수(2011)에서 소개했던 어휘묶음과 같은 것으로 여러 단어가 연이은 묶음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Shepherd & Sardinha 2013: 84). 몇 개의 단어가 연이어 쓰이는지에 따라 2-그램, 3-그램 등으로 부르며, 워드스미스에서는 어휘목록 기능에서 출력한 인덱스 목록에서 클러스터(cluster) 기능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각 코퍼스별로 엔그램과 같은 정형적인 표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본다. 3-그램, 4-그램, 5-그램 목록을 산출하여¹³⁾ 코퍼스 간 비교를 하도록 한다. Kor_Eng,

12) 신뢰도 95%,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한다.

13) 2-그램은 너무 짧아 의미 없는 묶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 6-그램 이상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 워드스미스에는 엔그램의 범위를 설정해 한 번에 목록을 산

Eng_Eng, Ref_Eng 각각의 3-그램 목록과 빈도를 산출한 결과, 빈도가 5이상인 어휘묶음¹⁴⁾은 Kor_Eng 17,378개, 총 201,602회(15,576개, 총 180,693회), Eng_Eng 8,705개, 총 92,165회(14,604개, 총 154,619회), Ref_Eng 12,074개, 총 131,656회(12,161개, 총 132,602회)로 나타났다. 4-그램의 경우 Kor_Eng 4,483개, 총 40,411회(3,944개, 총 35,553회), Eng_Eng 1,755개, 총 14,741회(2,879개, 총 24,184회), Ref_Eng 2,090개, 총 17,260회(2,105개, 총 17,384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그램의 경우 Kor_Eng 717개, 총 5,629회(631개, 총 4,952회), Eng_Eng 259개, 총 1,902회(425개, 총 3,120회), Ref_Eng 256개 총 1,920회(258개, 총 1,934회)로 나타났다. 비교를 위해 1백만 단어를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3~5-그램 개수 및 빈도

엔그램	Kor_Eng	Eng_Eng	Ref_Eng
3-그램 개수/빈도	15,576 / 180,693	14,604 / 154,619	12,161 / 132,602
4-그램 개수/빈도	3,944 / 35,553	2,879 / 24,184	2,105 / 17,384
5-그램 개수/빈도	631 / 4,952	425 / 3,120	258 / 1,934

표에서 보듯이 모든 길이의 어휘묶음에서 Kor_Eng>Eng_Eng>Ref_Eng 순으로 개수도 많고, 총 사용 빈도도 높다. 번역이 비번역에 비해 도착어의 정형화된 표현, 굳어진 패턴을 많이 사용한다는 번역 표준화 가설(Laviosa 2002: 54-55)이 이번 분석에서 유효하게 나타난다. 또한 한국인 번역가들이 원어민 번역가보다 어휘묶음 개수와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코퍼스 와 한국인 코퍼스 간의 차이는 비번역과의 차이보다 크다. 정형표현에 관한 한 한국인 번역가가 번역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는 문체를 보인다면 원어민 번역가는 상대적으로 비번역에 가까운 문체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출하는 기능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각 어휘묶음별 비교를 위해 개별 산출했다.

14) 세 코퍼스 크기가 다르므로 1백만 단어를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괄호 속이 환산한 수치다.

4.3.2 *that is* 유사 정형표현 분석

베이커(Baker 2004: 175)는 TEC 및 BNC에서 정형표현¹⁵⁾의 빈도를 분석하고 번역가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표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두 코퍼스 간 정형표현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TEC와 BNC 정형표현 빈도 분석

정형표현	TEC	BNC
<i>that is</i>	288	119
<i>that is to say</i>	129	36
<i>in other words</i>	161	31
<i>at the same time</i>	669	323
<i>in the middle of</i>	401	209
<i>from time to time</i>	394	137
<i>on the other hand</i>	347	150
<i>once and for all</i>	120	26
<i>when it comes to</i>	78	35
<i>at the edge of the</i>	67	46
<i>I thought to myself</i>	43	12
<i>in a manner of speaking</i>	40	10

전체적으로 번역인 TEC의 빈도가 BNC의 빈도보다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베이커는 위 목록 중에서 특히 부연 설명을 위한 표현인 *that is*,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가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는 데 주목해 코퍼스에 포함된 특정 번역가가 이들 표현을 선택한 양상과 빈도를 분석한 바 있다(Baker 2004: 182). 본고의 코퍼스에서도 각 코퍼스에서 이들 표현의 콘코던스를 출력해 개별 용례의 맥락에서 해당 용법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빈도를 집계해 코퍼스 간에 선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 10은 분석 결과를 1백만 단어로 환산해 정리한 표다(괄호 속의 비율은 세 표현을 해당 용법의 전체

15) 텍스트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어휘묶음, 시간이나 장소 관련 어휘묶음, 지시의 어휘 묶음 등은 텍스트의 영향을 받는 어휘묶음이므로 제외한다(Baker 2004: 174; 이창수 2011: 155).

집합으로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표 10〉 코퍼스별 *that is* 유사 정형표현 빈도 분석

정형표현	Kor_Eng	Eng_Eng	Ref_Eng
<i>that is</i> ¹⁶⁾	33.43(58.5%)	13.12(29.6%)	5.04(71.4%)
<i>that is to say</i>	2.63(4.6%)	4.92(11.1%)	1.01(14.3%)
<i>in other words</i>	21.11(36.9%)	26.25(59.3%)	1.01(14.3%)

베이커(2004)에서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정형표현의 빈도는 비번역에 비해 번역 코퍼스에서 높게 나타났다. 번역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표현은 *that is to say*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비율로 비교해보면 TEC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모습이다. 두 번역 코퍼스 간에 가장 선호하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 번역 코퍼스에서는 *that is*가, 원어민 번역 코퍼스에서는 *in other words*가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용법에 대해 문체 차이가 나타난다. 이 수치만 보자면 참조 코퍼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가장 선호한 KR_Eng는 상대적으로 번역의 표준화 성향을 더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표현의 빈도가 낮아 코퍼스 간 문체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참조 코퍼스에서 이들 표현이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난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르적 특성과도 약간의 연관이 있다. 본고의 참조 코퍼스와 거의 크기가 같은 BNC Baby의 뉴스 하위 코퍼스(943,372 단어)로 같은 분석을 한 결과 *that is*,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가 1백만 단어로 환산했을 때 각각 약 15.90, 2.12, 11.6개가 검출돼 부연 설명을 위한 표현은 소설보다는 기사문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로 쓰인 소설 코퍼스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 번역 코퍼스에서, 특히 한국인 번역 코퍼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문체 차이를 야기하고 영어권 독자에게는 낯선 요소가 될 수 있다.

16) 다른 두 표현에 비해 두 단어로 이루어진 *that is*는 접속사+술어, 주어+술어 등 다른 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콘코던스에 나오는 모든 용례의 맥락과 용법을 세심히 살폈다.

5. 나가는 말

한국문학의 해외 전파와 그 중요한 축이 되는 번역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발맞춰, 본고는 한국 소설 영어 번역의 전반적인 문체에 주목하고 한국인 번역, 원어민 번역, 영어 소설 텍스트의 문체를 코퍼스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에서 문학 번역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논의된 분석 항목들이 번역 대 비번역, 한국인 번역 대 원어민 번역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번역 코퍼스가 원어민 번역 코퍼스 및 비번역 코퍼스에 비해 접속어 사용과 간접화법의 *that* 사용 면에서 더 뚜렷한 명시화 경향을 보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명시화 분석 항목을 확대해 특정 번역가(그룹)의 번역과 특정 명시화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탐색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한국인 번역 코퍼스는 또한 정형표현 사용 면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기록해 원어민 번역 코퍼스에 비해 번역으로서의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착어 원어민이 아닌 번역가가 번역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체 차이에 대한 막연한 추정을 코퍼스 분석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국인 번역 코퍼스와 원어민 코퍼스가 비슷한 결과를 내거나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분석 항목도 있었지만 비번역 코퍼스에 비해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원어민이 번역한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이 해외에서 큰 인정을 받으면서 해외 독자가 더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번역 문체가 화두에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는 번역가와 번역을 배우는 학생들이 주목할 부분이며 다양한 문체 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that is*의 사례처럼 복수의 유사 표현이 비번역에서 어떤 비율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심화 연구한다면 실무나 학습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의 한영 번역 텍스트를 대규모 코퍼스로 구축해 코퍼스 분석을 토대로 문체 연구를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본고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외국인 번역 코퍼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결과 비교 시 환산에 의존해야 했고, 참조 코퍼스에서 정형표현의 빈도가 매우 낮은 문제가 있었다. 특정 분석 항목의 저빈도는 코퍼스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코퍼스 구성과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본고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후속 연구로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정우 (2012) 「현대 국어 번역문의 실태」, 『새국어생활』 22(1): 53-66.
- 이창수 (2011) 「어휘목록 분석을 활용한 번역어와 비번역어 차이 연구방법 고찰: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3(2): 147-165.
- 이창수 (2016) 「한영번역소설과 원어영어소설에서의 eyes 행위자 환유에 관한 코퍼스 기반 비교 분석 연구」, 『번역학연구』 17(1): 107-126.
- 임병권 (2014)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전략과 번역」, 『작가들』 48: 208-224.
- 조수연 (2014) 「코퍼스 기법을 활용한 문학 텍스트 직시어(Deixis) 번역 전략 비교 분석 -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239-264.
- 조준형, 이영훈, 계명훈, 고여림, 김보현, 김지은, 이상인 (2011)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평가 연구: 프랑스 소설 모데라토 칸타빌레(Moderato Cantabile)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고빈도 명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225-262.
- Baker, Mona (1995)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arget* 7(2): 223-243.
- Baker, Mona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arold Somers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Studies in Language Engineer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5-186.
- Baker, Mona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 Baker, Mona (2004) ‘A Corpus-based View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9(2): 167-193.
- Bell, Allan (2001) ‘Back in Style: Reworking Audience Design’, in Penelope Eckert and John R. Rickford (eds)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9-169.
- Biber, Douglas (2011) ‘Corpus Linguistics and the Study of Literature - Back to the Future?’ *Scientific Study of Literature* 1(1): 15-23.

- Larsen-Freeman, Diane (2011) 'Key Concepts in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Education', in James Simpson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55-170.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Rodopi.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Harlow: Pearson Longman.
- Mahlberg, Michaela (2013) *Corpus Stylistics and Dickens's Fiction*, New York: Routledge.
- McEnery, Tony and Andrew Wilson (2001) *Corpus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Olohan, Maeve and Mona Baker (2000) 'Reporting That in Translated English. Evidence for Subconscious Processes of Explicit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2): 141-158.
- Saldanha, Gabriela (2011a) 'Translator Styl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The Translator* 17(1): 25-50.
- Saldanha, Gabriela (2011b) 'Style of Translation: The Use of Foreign Words in Translations by Margaret Jull Costa and Peter Bush', in Alet Kruger, Kim Wallmach and Jeremy Munday (eds)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Scott, Mike (2016) *WordSmith Tools Version 7*, Stroud: Lexical Analysis Software.
- Scott, Mike and Christopher Tribble (2006) *Textual Patterns: Key Words and Corpus Analysis in Language Edu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hepherd, Tania M. G. and Tony Berber Sardinha (2013) 'A Rough Guide to Doing Corpus Stylistics', *Matraga* 20(32): 66-89.
- Simpson, Paul (2004) *Stylistics: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Wright, Laura and Jonathan Hope (2005) *Stylistics: A Practical Coursebook*, London & New York: Routledge.

<참고 웹사이트>

<http://www.klti.or.kr>

<http://www.natcorp.ox.ac.uk>

[Abstract]

**A Study of the Stylistic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A Corpus-based Analysis**

Choi, Hee-kyung
(Korea University)

Korean pop culture has gained increasing popularity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 recent years. Korean literature, although integral to Korean culture, seems to have lagged behind in this trend. It is often said that translation is the key to reaching a global audience of readers; however, translated Korean works, with few exceptions, have not lived up to their expectations. It is high time, thus, to pay attention to the stylistic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general and try to find insights to make the translated words more appealing. As a first step,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stylistic differences between Korean-native translators and English-native translators, and between translation and non-translation. The study draws on techniques of corpus linguistics to examine stylistics of the texts with a focus on explicitation and lexical bundle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affirm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in that translated texts show more evidence of explicitation and lexical bundles than non-translated texts. The analysis also reveals stylistic differences between Korean-native and English-native translators, with the former having a greater tendency toward explicitation and lexical bundles.

▶ Key Words: stylistics, literary translation, explicitation, lexical bundles, corpus-based analysis

최희경

고려대학교 KU-MU 통번역과정

translation.chk@gmail.com

관심분야: 언어접촉 및 변화, 코퍼스 기반 번역 문체 연구,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2일